

‘코로나 확진’ 응급실 의사 “5개월 된 아들 감염 ‘억장’”

조선대병원 전공의, 환자 삼관 시술 중 확진...산후 조리 아내도 ‘양성’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코로나19에 감염된데 이어, 생후 5개월 된 아들과 부인까지 가족 전체가 감염됐다.

의료 일선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불가피한 숙명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방역당국은 아기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가족이 동일한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자신이 응급실에서 진료·시술했던 응급 의상환자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A씨는 앞서 환자와 접촉해 10일 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했는데 격리 해제에 앞서 실시한 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앞두고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자 PCR 검사를 받길 원했고,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긴급 이송된 갈비뼈 골절 환자를 치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지만, 당시 A씨는 환자가 누두령에서 굴러 떨어져 흉곽 골절로 인한 폐손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

이고 있는 환자를 두고 볼 수 없었다. 당장 기관 삽입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A씨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환자에게 기관삽입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급환자의 목구멍을 통해 기관삽입을 하면서 환자가 내뿜은 기침과 비말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보다 가족들 걱정이 앞섰다. A씨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집으로 돌아와 딱 하루 동안 아들과 아내를 만났었는데,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아들과 아내가 감염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특히 A씨의 아들은 이제 막 태어난지 5개월 뿐이 되지 않은 영아인 탓에 A씨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의 한 생활치료시설로 옮겨졌지만 고열과 잦은 기침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빛고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안감은 지우기 어려웠지만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요즘 말로 ‘멘붕’이었다. 가족들 만큼은 감염되지 않길 바랐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감염되니 부모로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특히 아이가 고열증세에 가래는 물론 산소포화도마저 떨어지면서 너무나 불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감염된 아들과 함께 병실을 쓰며, 열을 가장 병간호에 집중했고 다행히 아들 증세는 호전됐다.

그러나 6일 새벽, 자가격리중이던 아내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응급실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줄곧 머리 속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후회는 없지만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딱한 사연을 전해 들은 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아내까지 포함해 한 가정이 동일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북 3390곳 현장 점검 건설업 난간 미설치 48% 등 2020여 곳 수칙 어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내 중소기업 건설·제조업체의 안전조치를 점검한 결과 59.6%가 넘는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매일 격주로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현장점검’ 결과를 내놨다.

점검결과 관내 3390곳의 현장 중 2021곳의 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점검을 실시한 3390곳의 현장 중 광주·전남 현장은 1929곳, 전북은 1051곳, 제주는 41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516곳 중 1534곳이 적발됐고, 제조업은 769곳에서 436곳이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건설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48%, 개인보

호구 미착용 19.7%, 작업발판 미설치 18.5% 등의 순으로 안전조치위반사항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방호조치(덮개 등) 미설치가 39.7%로 가장 많았고, 지게차 안전조치미비 15.5%, 방호장치 해제 12.1% 순으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현장점검은 7-8월(4회)과 9-11월(6회) 진행됐다. 기간에 따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4.1%포인트증가(60.4%→64.5%)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12월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사항 점검과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日 강제징용에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

피해자 양금덕·김성주·김정주 할머니 자서전 일본서 출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역정이 담긴 자서전이 일본에서 발간됐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양금덕(91) 할머니와 김성주(93), 김정주(91)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자서전은 앞서 지난 1월 국내에서 발간됐던 세 할머니의 자서전을 한권으로 묶은 것이며, 자서전에는 할머니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된 경위와 현지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까지 나서 싸워 온 힘든 여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할머니들의 일본 내 자서전 발간을 위해 일본 내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근로정신



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후지코시 강제인행 강제 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등이 힘을 보탤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전개해 온 일련의 시민적 노력과 연대활동에 의해 이번 자서전 출간도 가능했다”며 “예전 같으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피해 할머니들이 이제는 이 싸움의 주체로 당당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조선대, 메타버스 갤러리 구축...‘캠퍼스까지 확장 계획’

조선대학교 문화·애니메이션 학과가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한 갤러리를 구축했다.

지난 3일 개관한 온라인 갤러리는 메타버스를 통해 작품을 둘러보며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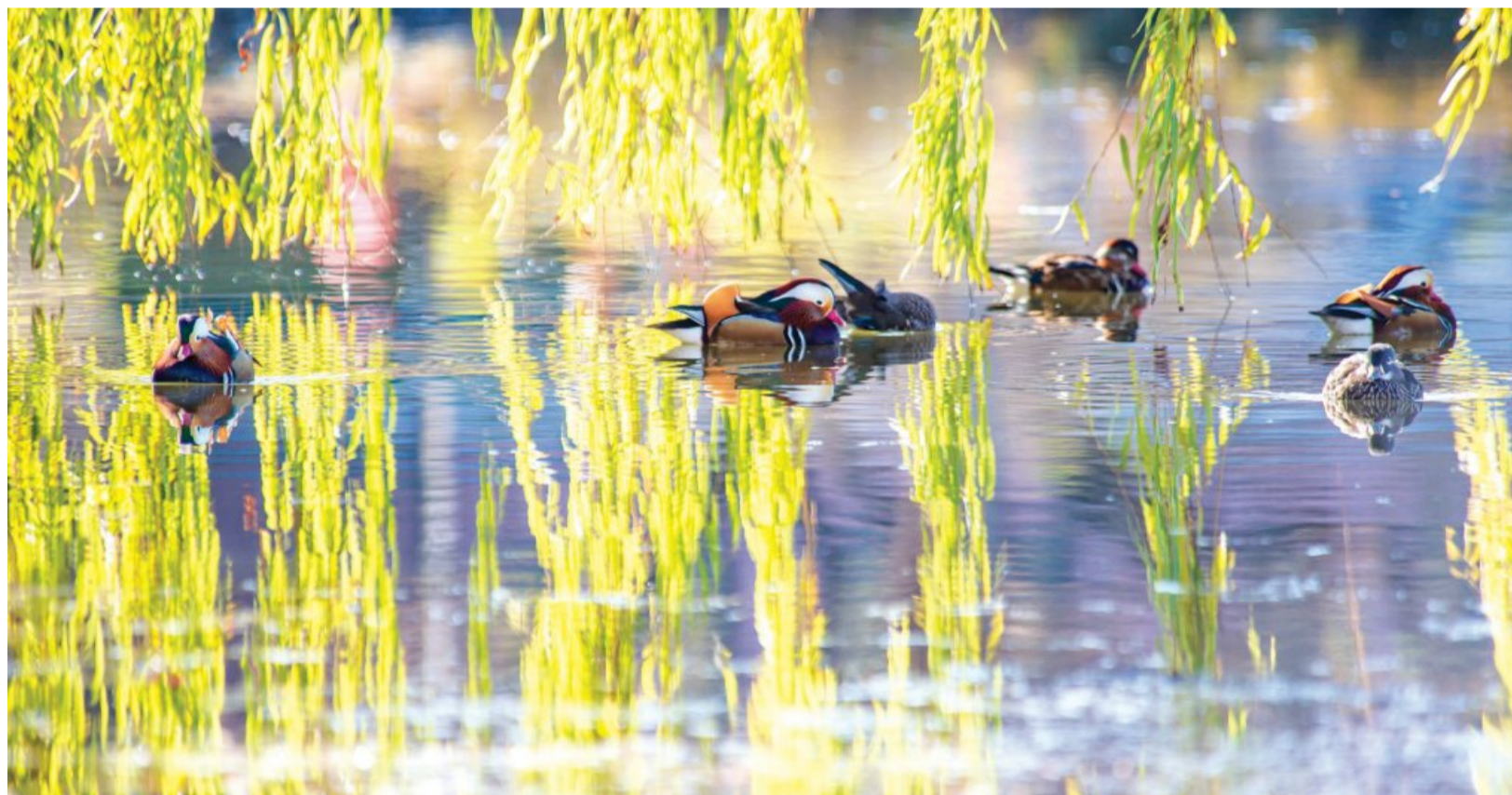
문화·애니메이션 학과 석·박사생들과 지역 기업체인 ㈜공감미디어 관계자들이 지난 5월부터 11월 까지 참여해 해당 메타버스 갤러리를 개발했다. 갤러리는 인터넷 주소창에 ‘chosunmetaverse.com’으로 접속해 입장할 수 있다.

20명의 아바타가 동시 입장이 가능하며 대화도 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100여개의 웹툰과 애니메이션, 게임용 ‘2D&3D 이미지’를 둘러볼 수 있

다. ‘양립동 굿즈 쇼핑몰’ 등 다양한 전시와 경제활동까지 가능하다.

문화·애니메이션 학과 김일태 교수는 “이번 메타버스 갤러리를 향한 조선대학교 캠퍼스까지 확대해서 강의, 공연, 전시, 학교 행사 등을 디지털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봄날 소풍 나온 듯 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 호수 위를 원앙 무리들이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